

# 파견 교환학생 수학 보고서

파견대학	국가	영국
	대학명	울버햄튼대학교

## 1. 출국 전 준비 사항

###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영국으로 6개월 이내 머무는 경우는 따로 비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유학생 보험은 영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도 보장받을 수 있는 장기 보험으로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었지만, 출국 준비 기간 동안 울버햄튼 교환학생 담당자께서 다양한 정보 제공을 해주실 텐데 그 정보 속 보험 또한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권 또한 울버햄튼 대학 측에서 제공하는 픽업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그에 맞춰 준비하면 되고 자유롭게 일정을 짜고 움직여도 되는 거라 편한 시간과 요일, 조금 더 싼 항공권으로 준비해도 좋습니다. 저는 외국으로 나가는 게 처음이고 짐이 많기에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영국 생활을 위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기에 가져갔을 때 개인적으로 좋았던 물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람막이는 튼튼한 걸로 하나 챙겨가면 우산이나 모자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영국에 우산과 모자를 가져가긴 했으나 정작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쓴 기억은 없습니다. 모자가 달리고 방수 기능이 확실한 조금 두께가 있는 바람막이를 입고 다니면서 비가 오나 안 오나를 매번 확인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람막이가 아니더라도 모자가 달린 후드티나 겹옷 등 머리를 가릴 수 있는 의류가 부피는 크지만, 영국 생활하기에는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월에 파견되어 5월까지 머무르는 기간 동안 난방이 안 되어 추웠던 일은 거의 없었으나 추위를 많이 탄다면 전기장판은 챙겨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추운 날이어도 일정 시간대에만 난방 시스템이 작동되어서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방 안의 공기가 차서 춥다고 느껴진 기억이 많습니다. 제공되는 이불 또한 엄청 두꺼운 이불이 아니기에 추위를 모두 막아줄 순 없어서 챙길 수 있다면 전기장판은 있으면 더 좋습니다.

##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영국은 영어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저 또한 영국 억양을 좋아하여 억양이 잘 드러나는 영화나 드라마를 즐겨보는 사람 중 하나였는데 막상 와서 들어본 억양은 알아듣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알아듣기는 더 어려웠고 학교 내 다른 친구들만 만나더라도 억양이 정말 다양했기에 초반에는 항상 긴장한 채로 대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토익 듣기 시험 속 다양한 억양을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는지 매 순간이 시험에 놓인 기분이었습니니다.

교환학생 생활 속 영국인을 만난 기억보단 다른 나라에서 유학으로 온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난 기억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각자가 가진 종교로 인해 음식 선택이 제한되거나 식사 시간이 제한됐던 순간(라마단 기간)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단순히 서로의 선호도로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정하는 게 아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한국에서는 겪기 힘든 경험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정말 외국에서 다른 나라의 친구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많이 느꼈습니다.

### 나. 파견 대학

#### 나-1. 대학 선택 이유

먼저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이기에 교환학생 가기 위한 준비 부담이 작았습니다. 특히 제가 지원했던 울버햄튼 대학교는 토익으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교환학생을 위한 어학 자격증을 마련할 필요가 없었고 충족해야 할 성적도 높지 않아 다른 영어권 나라보단 수월한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충기 소유가 가능한 미국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 선택하였습니다.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일 년 동안 생활해야 할 공간이 안전했으면 하는 마음에 충기 소유 불가능한 나라로 선택하였습니다.

영국 외 다른 유럽권의 나라에 여행이 편리하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유럽 내 다른 나라나 도시를 오고 가는 교통권이 잘 마련되어 있어 수업이 없는 날에는 번개로도 짧은 여행 가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기에 가장 좋았던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나-2. 공항 - 학교

저는 울버햄튼 대학교에서 지원한 픽업 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버밍엄 공항에서 오전과 밤 각각 한 번씩 모여 학교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었던 거라 편리할 것 같아 신

청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시간대의 픽업 서비스를 신청한 다른 학생들과 같은 항공권을 타고 가서 비교적 타국 입국과 이동 시 낯선 기분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청한 픽업 시간에 많은 학생이 몰려 준비한 버스의 화물 공간이 모자라 저를 포함한 13명의 학생은 제시간에 타지 못했습니다. 1차로 기숙사를 들르고 오는 버스를 기다릴지, 공항에서 택시를 불러 학생들끼리 알아서 갈지 고민 끝에 학교 운전기사님을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 후 픽업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1월 추운 겨울날 공항에서 기다렸던 순간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영국은 기차나 버스 등 오고 가는 교통편이 잘 되어 있어 버밍엄 공항에서 울버햄튼 도시까지 30분 이내에 갈 수 있습니다. 낯선 도시라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따로 픽업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나-3. 수강 신청, 수업 내용(프로그램 과정)

영국 가기 전, 신청했던 수업들은 2주간의 수업 정정 시스템을 통해 신청 취소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울버햄튼에서는 총 60크레딧을 채워 들을 수 있으며 일반 과목은 20크레딧, 경영 관련 과목은 30크레딧으로 2과목 또는 3과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타국 학생들을 위한 영어 수업으로 English in Context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듣는 것은 자유지만, 대부분의 한국 학생이 들었던 수업입니다. 과제로는 외국인 친구를 상대로 1분간 영어로 인터뷰, 녹음한 인터뷰 내용을 받아 적는 등을 통해 과제로 실제 말하기, 듣기 그리고 쓰기까지 연습할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Sustainable Business와 Digital Business 두 경영 과목을 들었고 모두 시험 없이 기업 분석 보고서 작성으로 성적 반영 되었습니다. 각각 하나의 기업을 선택하여 수업 내용 속 배운 내용을 기준으로 기업 분석을 하여 보고서를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4시간 수업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이론 및 토론 수업으로 2시간, 남은 2시간은 기업 선정, 기업 분석 등 보고서를 작성하고 교수님께 피드백 받는 시간으로 쓰였습니다.

#### 나-4. 기숙사

학교에서 제공되는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화장실이 포함된 개인실로 주방은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 플랫(한 층에 두 플랫 있습니다.)에는 보통 4~6명이 거주하며 혼성 또는 남녀 구분되어 배정됩니다. 기숙사는 Lomas Street과 North Road에 나누어져 있으며, 제가 지낸 기숙사는 Lomas Street에 있었고 기숙사 관리 사무실과 큰 마트가 가까이에 있어 편리했습니다. 기숙사 방은 해당 학교 기숙사 관리 사무실에 도착 후 배정되었고 그 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낸 플랫에는 모두 서로 다른 국적의 여자로 총 5명이 함께 지냈고 한 주에

한 번씩 돌아가며 공용 주방을 치우는 규칙을 세워 지냈습니다. 해당 규칙을 잘 지키는 친구도 있고 안 지키는 친구도 있지만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마주하며 대화하고 지내볼 수 있어 귀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양한 국적을 가졌기에 식습관부터 주방 이용 방식 등 일상 속 작은 부분까지 맞지 않아 부딪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어로 소통하며 서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통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한국인 4명 그리고 외국인 1명으로 구성된 플랏도 있는데 해당 경우에는 생활은 편리하지만, 영어 실력 향상 및 외국 문화의 경험을 위해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이 과반수인 플랏에서 외국인과의 더 많은 소통을 위해 방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사유로 방을 바꾸는 경우에는 추가로 20파운드를 내야 하며, 기숙사 시설, 예를 들면 너무 많은 벌레 등의 이유로 바꾸는 경우에는 추가 금액 없이 바꿀 수 있었습니다.

#### 나-5. 교내·외 활동

교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많았으나 초반 학교 투어 이외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는 학교 내 체육 시설 이용이나 동아리 가입을 하진 않았지만, 주변 한국 학생들은 배드민턴을 치러 가고 농구를 하는 등 학교 내 체육관을 즐겨 이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동아리 활동이 아니어도 학교 내 있는 ‘Luna Lounge’를 이용하며 많은 외국인 친구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라운지 내에서 Movie night의 이름으로 해리포터를 틀어주기도 하고 요일마다 퀴즈를 풀거나 자유롭게 나와 노래를 부르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특정 시간 후에는 맥주나 안주 등을 즐길 수도 있으며 포켓볼도 칠 수 있어 주로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가끔 근교 도시를 함께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되었습니다. ‘Cambridge’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는 해당 날에 런던으로 이미 떠난 상태라 참여하진 못했으나, 갔던 학생들의 후기로는 재밌었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 나-6. 꿀팁

식재료 및 생활용품이 필요할 때는 기숙사 옆에 있는 ‘Asda’라는 마트를 주로 이용하였습니다. 또는 조금 더 걸어가면 있는 ‘Home Bargains’을 이용하였고 그 주변에 냉동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Iceland’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Iceland 마트는 주로 묶음 판매를 하기에 여럿이서 공동으로 구매하면 이득이었습니다. 그 외 ‘Sainsbury’s, ALDI, Tesco’ 등 다양한 큰 마트가 많았고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 또는

차가 있는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갔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버밍엄을 가면 버밍엄 대 근처 한인마트가 있어서 라면이나 한국 식자재 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쓰는 플랫이나 가까이에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플랫이라면 공동 구매 후 나눠 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쌀이나 브리타 필터 등 대량으로 사는 경우 더 싼 제품들은 함께 사고 나눴습니다.

여행이나 도시 간 이동 중 기차나 버스가 지연 또는 취소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기차는 파업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고 그로 인해 파업 후 기차표가 정말 비싸졌으며 그로 인해 여행 경비가 급격히 오른 기억이 있습니다. 또는 날씨의 영향으로 취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국의 날씨 특징 중 하나로 비가 많이 오기에 철도에 물이 고여 기차 운행이 취소되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승을 해야 하는데 처음 탄 기차가 어떠한 이유로 지연되어 다음 기차를 놓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렇기에 환승 시간을 넉넉히 잡는 게 가장 좋지만, 기차 지연으로 인해 놓치는 경우에는 보통 환불이 가능하니 일단 놓친 기차표에 대한 환불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먼저 여행 계획을 세울 때에는 파업 기간과 날씨, 그리고 취소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교통수단을 반영한 여행 계획이 필요하고 취소 또는 지연 시 기차표에 대한 요구를 확실히 하여 돈을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 가. 스페인

먼저 영국이 아닌 타국을 여행한 곳은 봄학기 중 Easter Holiday 기간을 활용하여 스페인을 다녀왔습니다. 17박 18일 일정으로 바르셀로나, 말라가, 그라나다, 론다, 세비야를 여행했습니다. 스페인 여행 속 전반적인 느낌은 무난한 여행이었습니다. 음식이 간이 센 편이긴 했으나 타파스나 뽕뽕 등 한국인의 입맛에 크게 낯설지 않은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고 현지인들 또한 친절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관광지로 유명한 곳들이 많기에 볼거리가 많아 눈이 즐거웠고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즐기는 공간에서는 그 나라 현지인들의 색깔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어 인상 깊었습니다.

#### 나. 독일

학기가 끝남과 동시에 런던 여행 후 독일로 넘어가 7박 8일 여행하였습니다. 첫 도시로 베를린을 시작으로 작은 소도시들을 방문하였습니다. 베를린에서는 한인 민박을 이용하였고 이곳 또한 조식이 한식으로 나와 든든히 먹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소도시들을 여행 시 독일의 친구 집에서 머물러서 따로 숙박비용이나 교통비용은 나가지 않았고 주로 성들과 성당들을 방문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독일에는 크고 작은 성들이 정말 많은데 한 곳 한 곳 둘러보며 각 마을의 전망도 보고 마을마다 제조하는 다양

한 맥주도 마시며 즐겼던 기억입니다. 독일은 산과 들판도 많고 나무들도 많아서 가는 곳곳마다 눈이 즐거웠습니다. 유홍 거리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도시와는 또 다른 즐길 거리가 많았고 평화로웠습니다.

#### 다. 체코

독일에서 넘어간 프라하는 3박 4일 머물며 여유롭게 여행했습니다. 프라하 또한 한인 민박에서 머물렀고 여행 일정을 모두 넉넉하게 정하고 움직여서 시간적 여유가 많았습니다. 또한 Summer Time 기간으로 낮에는 정말 더웠지만, 밤 10시까지도 밝고 거리에 사람이 많아서 저녁 먹으러 나와 일몰과 야경까지 즐기다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거리 골목 골목을 걸어 다니며 작은 소품샵이나 현지의 색깔이 진하게 담긴 상점들을 구경하는 재미로 프라하 여행을 즐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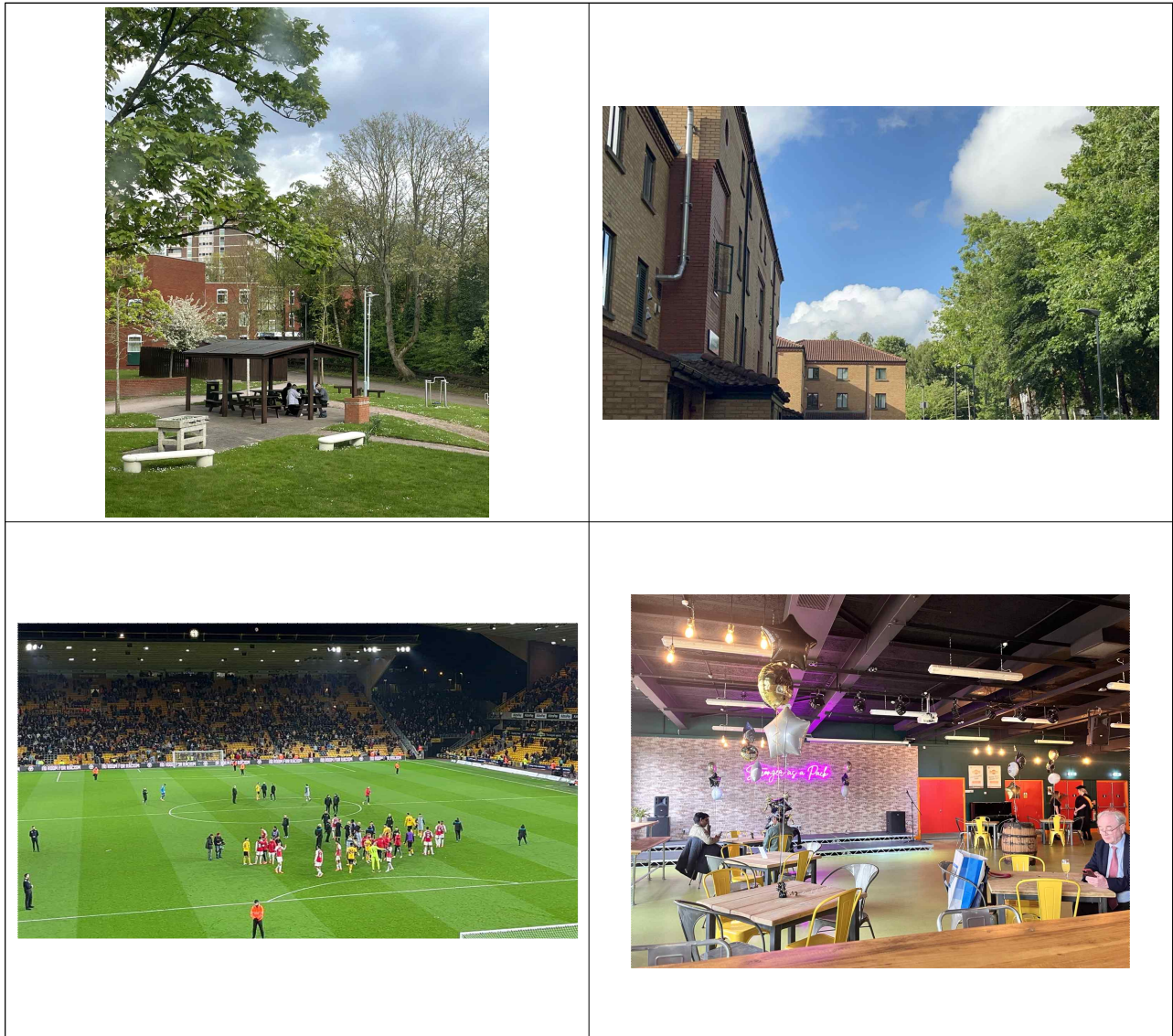
#### 라.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는 4박 5일 일정으로 잘츠부르크와 비엔나를 여행하였습니다. 모두 한인 민박에서 머물렀는데 먼저 잘츠부르크는 영화 사운드오브뮤직의 장소들을 방문하기 위해 선택하였습니다. 사운드오브뮤직 투어 또한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움직여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비엔나는 음악의 도시로 불리는 만큼 음악회를 보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 해도 될 만큼 즐거웠던 기억입니다.

#### 4. 후배들에게 한마디

낮선 타국에서의 생활이 처음이라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일은 당연하지만, 결국 사람 사는 공간이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영국이기에 다른 나라이기에 새로운 경험의 기대나 걱정을 가득 안고 가기보단, 마음 편히 간다면 심적으로 부담이 적을 것 같습니다.

## 5. 사진 자료 첨부(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첫 번째 사진은 기숙사 주방에서 볼 수 있던 풍경입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학생들이 야외 테이블에 모여 함께 과제하고 소풍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기숙사 복도에서 주차장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나무가 점점 푸릇해지고 풍성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싱그러움을 가득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사진은 울버햄튼 경기장에 가서 경기를 직관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경기장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추울 수 있던 날씨지만, 다 함께 응원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생기는 열기로 춥지 않게 경기를 즐기고 올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학생들의 만남의 광장이 되어 준 Luna Lounge의 사진입니다. 다양한 학교 행사를 이곳에서 진행하기에 갈 때마다 재밌던 기억이 많습니다.